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의 현장 적합성 검토

한 원 경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I. 들어가는 말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시행(2007.4.5.),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분야별 전문가 회의, 독서 전문가 심층회의, 관계부처 의견조회, 독서진흥위원회 심의 등의 힘든 과정을 거쳐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이라는 옥동자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하여 독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독서환경 조성, 독서활동 지원, 소외계층 독서지원, 독서 운동 전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의무 사항들을 규정한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계획으로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우리나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첫 발걸음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에 설부른 비판보다는 현장 적합성을 검토 차원에서 본 기본계획(안)을 바탕으로 독서문화진흥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할 교육청 단위에서 몇 년간 추진해 온 독서·글쓰기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더불어 독서·글쓰기 교육을 추진해 온 담당자로서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도 덧붙여 볼까 한다.

II. 교육청 독서·글쓰기 교육 추진 현황

1.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점화

독서 습관 형성 없이는 학교 교육의 성과도 거둘 수 없으며 학생들의 앞날에 대한 진지한 대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05년 3월부터 대구의 모든 학생들이 독서에 흥미를 갖고 일상 생활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일 학교의

아침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10분간 책읽기로 시작하자는 작은 독서 운동이자, 새로운 생활방식 창조 운동인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4년째 전개하고 있다.

2. 학교에서 사라졌던 아침의 고요와 집중의 시간 살아나

대구의 초·중·고등학교는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전개한 결과, 학교에서 사라졌던 아침의 고요와 집중의 시간이 살아나고 학생들의 독서습관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책맹이 퇴치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방송과 언론 매체에서 집중 보도를 하면서 대구는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메카로 명성을 높이게 되었다.

3. 복지시설 생활아동, 학교 운동부 학생 책읽어 주기

아침독서 10분 운동과 더불어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과 배려 차원에서 복지시설 생활아동 557명을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독서 기회를 갖기 어려운 학교 운동부 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책 읽어 주기 프로그램을 4년째 진행하고 있다.

4. 저자 학교에서 만나다 행사 실시

또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당 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자 학교에서 만나다'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대구 학생들은 소설가 조세희, 시인 김지하 같은 유명한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미래의 꿈을 가꾸고 있다.

5. 도서관 활용 직무연수 매년 1,600명 실시

독서 교육 환경 조성에 성공한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독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매년 중·고등학교 교원 1,600명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활용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 2월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의 4,800명(중등교원의 40%)이 이수하였다.

6. 직원 책읽기 3S 운동, 교원독서 마을 운영

또, 교육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육청 직원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333명의 직원이 같은 책을 같은 시간에 읽고난 다음 저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직원 책읽기 3S 운동(Same Book, Same People, Same Mind Movement)'을 3년째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들은 2005년 4월부터 '10년 후의 한국', '삼성처럼 회의하라' 등 36권의 책을 읽었으며, 최재천 교수, 소설가 김훈, 황석영과 같은 유명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를 키워나가고 있다.

더불어 교육청 직원 책읽기 3S 운동을 학교로 확산하기 위해 12개 학교를 1개의 독서마을로 묶고, 12

특 집

개 학교에 서로 다른 책을 교직원 숫자만큼 구입·배부하여 1개월씩 돌려 가면서 읽는 독서마을을 5개 운영함으로써 60개 학교 4,000명 이상의 교원들이 책돌려 읽기 운동을 3년째 전개하고 있다.

7. 독서 운동의 다양한 성과들

위와 같은 독서 운동의 성과로 2006년 9월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한민국 독서문화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의 실적도 거양하였으며, 2006년 11월 계명대학교 김종성 교수팀에 위탁하여 대구 학생 독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구 학생들의 연간 독서량이 초등학생 104.5권, 중학생 35.6권, 고등학생 21.3권 등으로 전국 학생들의 연간 평균 독서량 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한 독서 운동이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연간 독서량 100권대 진입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8. 북모닝! 대구(Book morning! Daegu)

‘아침 독서 10분 운동’을 북모닝! 대구(Book morning! Daegu)로 브랜드화하고, 대구를 책 읽는 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연계하여 2007년 4월부터 인생을 시작을 책과 더불어 할 수 있도록 6~24개월 되는 대구 영아 1만 명을 대상으로 10개 공공도서관에서 북스타트 가방 꾸러미를 나누어 주고,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교육, 책읽기 교육 등의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8년 4월부터는 3~5세 유아 1만명을 대상으로 북스타트 플러스 프로그램도 운동하고 있다.

9. 삶쓰기 100자 운동으로

2005년부터 펼쳐온 ‘아침독서 10분 운동’의 긍정적 효과를 심화시키면서 독서 결과가 자연스럽게 표현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삶쓰기 100자 운동’을 포함한 삶을 가꾸는 글쓰기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0. 삶쓰기 100자 노트, 글쓰기 워크시트 보급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3년간 같은 날을 같은 페이지에 배치하여 1~2년 전의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삶쓰기 100자 노트’를 3만 6천명 학생들에게 보급하였다. 그리고 글쓰기 워크시트 초등 6종, 중학교 2종을 개발하여 5월 중에 초, 중학생 전원에게 1권씩 보급하여, 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면서 연간 20편 정도의 생활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살쓰기 100자 노트〉



〈 글쓰기 워크시트〉

11. 전교원 대상 사이버 글쓰기 연수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의 초기 정착을 위해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연수 공동 이용 활용기관으로 등록하여 초·중등 교원(2007년 9천명, 2008년 7천명 전체교원의 85%), 학부모, 타시도 교원 등을 대상으로 서사글, 설명글, 감상글, 주장글, 시, 일기, 편지 등과 같은 정서적인 글쓰기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45차시의 '글쓰기 사이버 직무연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12. 또 다른 시작 북스타트 운동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통해 학교에서 불붙은 독서의 불길을 0~2세 영유아 대상의 북스타트(Book Start), 3~5세 유아 대상의 북스타트 플러스(Book Start plus) 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나아가 대구 시민 독서 운동으로 그 외연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07년 북스타트 운동으로 가방꾸러미를 14,000개 나누어 주었으며, 연간 7,000명의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13. 독서, 글쓰기를 넘어 책쓰기로

2008년도부터는 초·중·고등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문학창작 영재반 운영, 유치원 원아,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의 자녀에게 책읽어 주기 운동, 교원 대상의 책쓰기 직무연수 실시, 책쓰기 워크시트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책임는 독자에서 책쓰는 독자로 길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학생들을 이야기의 생산자로 길러냄으로써 대구를 독서, 글쓰기 및 책쓰기의 도시로 만들어 옛 학향의 명예와 정신을 회복하고, 나아가 대구를 국제적 지식생산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독서·글쓰기 교육 현황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특 집

〈 북모닝 대구 추진 현황 〉

연도	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 일반인
	0~2세	3~5세					
2005				아침독서 10분 운동		직원책임기3S운동	
2006				아침독서 10분 운동		직원책임기3S운동, 독서마을	
2007	북스타트운동	플러스(시범사업)	아침독서 10분 운동		직원책임기3S운동, 독서마을		
				살쓰기 100자 운동		교원 글쓰기 직무 연수(1만명)	
2008	북스타트(플러스) 운동		자녀에게 책임어 주기+아침독서 10분 운동		직원책임기3S운동, 독서마을		
				살쓰기 100자 운동		교원 글쓰기 직무 연수(7천명)	
				1인 1책쓰기, 문학영재 교육		교원 책쓰기 직무 연수	

Ⅲ. 몇 가지 제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몇 년간 독서·글쓰기 운동을 추진한 담당자로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한다.

1. 기본적인 독서 인프라는 중앙정부가 직접 구축해야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이 선언적 계획이 아닌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계획이 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보고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앙정부가(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인프라의 구축 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전국에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화사회에 알맞은 독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각 시·도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도서관, 읍면 단위의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특별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2년부터 5년간 학교도서관 현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1:1 투자방식으로 3,000억원을 투자하여 전국의 학교도서관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했던 것과 같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건립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쓰기 활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독서를 읽고 쓰는 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에서는 쓰기 활동을 위한 환경 구축과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 지방자치단체 간의 독서문화 격차 해소 방안

독서진흥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하거나 독서 마인드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서환경 조성,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대로 될는지 걱정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도서관,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4. 책 읽어 주는 사회를 먼저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책 읽는 독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책 읽어 주는 사회가 되어 한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사회에서는 어른들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책을 읽어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부모나 어른들로부터 책 읽어 주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책 읽는 어른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책 읽어 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부족한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북스타트 운동과 같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전국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도서관에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5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5. 학교도서관의 사서 인력 확보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 공간이자 문화와 휴식 공간이다. 특히, 놀이 공간이 없는 요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의 문화 공간이자, 놀이 공간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노력으로 학교도서관이 시설은 정말 많이 좋아졌으나, 사서 인력이 부족하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있어야 할 곳에 있을 사람이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력자원 배치라고 생각한다. 학생 시절 독서습관 형성 없이는 평생학습 사회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항상 개방되어 학생들의 독서의 공간, 문화공간으로써 제역할을 100%로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사서 확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독서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책 읽지 않는 어른들이 모든 실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난의 소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